

# '춘향의 멋, 세계를 매혹시키다'

남원시, '제96회 춘향제' 오늘 개막... 광한루원·요천 일원서 7일간 대장정 돌입

제96회 춘향제가 오늘부터 5월 6일까지 7일간 남원 광한루원과 요천 일원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올해 춘향제는 '춘향의 멋, 세계를 매혹시키다'라는 주제 아래, 전통의 가치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 축제는 100회 춘향제를 향한 빌드업으로서의 세대와 국경을 초월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역대급 규모의 콘텐츠로 구성되어 전국의 관광객들을 유혹할 전망이다.

축제의 서막은 4월 30일 저녁, 춘향제의 꽃으로 불리는 '춘향선발대회'가 장식한다. 대한민국 최고의 전통 미인을 뽑는 이 대회는 특별무대에서 화려한 조명과 함께 축제의 열기를 한껏 끌어올릴 예정이다.

이어 5월 1일에는 경건한 춘향제향을 시작으로 개막식은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이한 중국 염성시 공연단의 축하 공연으로 문을 연다.

이어 정명희와 두앤스 무용단의 화려한 주제 공연과 남원시립예술단의 합동공연 '시민, 춘향'이 무대에 오른다.

특히 '일장춘몽 콘서트'에는 대중가수 김용민, 김태우, 송하예 등 초호화 라인업이 출격해 남원의 밤을 뜨겁게 달구며, 밤 10시경 펼쳐지는 남원의 밤하늘을 수놓을 대규모 개막 불꽃쇼로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밤의 낭만을 선사한다.

축제 기간 한루원과 요천 일대는 거대한 공연장으로 변모해 5월 2일부터 5일까지 이어지



제96회 춘향제 포스터

는 '일장춘몽 콘서트'는 '기쁨의 선물', '결기의 울림', '사랑의 멜로디'라는 세 가지 테마로 매일 새로운 감동을 전한다.

5월 4일에는 KBS 국악한마당이 열려 전통의 깊은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한다. 또한 몽골, 이집트, 태국 등 세계 각국 민속 공연단의 이색적인 무대가 매일 펼쳐져 글로벌 문화 교류의 장으로서 춘향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증명한다.

올해 춘향제의 또 다른 주인공은 입과 눈이 즐거운 먹거리로, 남원시는 먹거리의 신뢰를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더본코

리아와 협업한 '더본코'를 운영, 고품질의 남원 지역 특화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날 수 있어 관광객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곳곳의 푸드트럭과 경의상가의 청년부스는 젊은 감각의 이색 메뉴들을 선보이며 축제장에 활기찬 에너지를 불어넣을 예정이다.

예술과 체육의 향연도 이어진다. 제53회 대한민곡 춘향 국악대전과 대통령상 승격에 빛나는 제20회 대한민국 율곡목공예대전이 열려 전통 예술의 정수를 보여준다. 이와 연계된 다양한 체육행사 또한 축제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킬 전망이다.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사랑의 광장에서 '어린이날 대축제'가 열려 드론 체험, SW 체험, 매직쇼 등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프로그램들이 운영된다.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판소리 체험, 한복 입기, 가훈 써주기 등 오감을 만족시킬 체험 부스도 운영된다.

이간 프로그램도 강화해 피오리움 달빛정원 일원에는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키즈 나이트 페스타'가 운영, 버블&솜사탕 퍼포먼스를 비롯해 마술공연, 어울립스튜디오, 키즈 빛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남원시는 5,000대 이상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스마트 교통 시스템 및 구석구석 셔틀버스를 운영해 관광객들이 쾌적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민간의 준비를 마쳤다.

7일간의 대장정은 5월 6일, 김혜순 명인의 한복 퍼포먼스와 '흥의 태동' 폐막 공연, 불꽃놀이로 화려하게 마무리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 '소리를 넘어 기억으로 동진토조의 노래'

김제시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 이달의 소장품 전시 개최

김제시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이 이달의 소장품 전시로 '소리를 넘어 기억으로 동진토조의 노래'를 주제로 한 전시를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지난 1968년 제작된 '동진토조의 노래' 음반을 중심으로, 농업 기반 지역 공동체의 문화와 정서를 조명한다. 해당 음반은 1925년 창립된 동진토지개량조합의 창립 42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것으로, 작사자 '신석정(辛奭汀)'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조합원의 결속과 지역 정체성을 담은 기록물이다.

특히 음반 표지에는 조합의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조합원의 단합과 증산 의욕을 높이고, 공동체의 가치를 다음 세대에 전하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 있어 당시 농촌 사



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의미를 더한다.

동진토지개량조합은 수리조합 형태로 출발해 농업용수 공급과 농경지 개발 등 지역 농업 기반 형성에 기여해 왔으며, 현재는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로 기능이 이어지고 있다.

/김제=곽도태 기자

## 동화 발레 '도시의 모험' 5월 2일 완주서 공연

완주군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환상적인 동화 발레 공연을 선보이며 가정의 달 시작을 알린다.

전북 발레시어터의 해설이 있는 동화 발레 '도시의 모험'이 오는 5월 2일 토요일 오후 2시, 완주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고전 동화 '오즈의 마법사'를 바탕으로, 발레와 마술 요소를 결합해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모두가 쉽게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된 공연이다.

어린이날을 맞아 기획된 특별 프로그램으로, 50% 할인 혜택이 적용돼 전석 5,000원에 관람이 가능하며, 예매 수수료 2,000원이 별도로 추가된다. 티켓은 볼(NOL)티켓을 통해 예매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290-2092)에게 문의하면 된다. /완주=염재복 기자



## '춘향제 서막' 글로벌 춘향선발대회

본선 진출자 36명 무대, 오늘 광한루원 앞 특설무대에서 개최

남원시는 30일, 제96회 춘향제(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의 서막을 여는 '글로벌 춘향선발대회' 본선 무대가 광한루원 앞 특설무대에서 성대하게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본선은 36명의 진출자가 펼쳐는 화려하

고 역동적인 그룹 댄스 퍼포먼스로 무대를 뜨겁게 달구 예정이며, 실력과 아티스트들의 화려한 축하공연이 더해져 축제의 열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전망이다.

뮤지컬과 가요계를 넘나드는 압도적 가창력



의 '예능', 호소력 짙은 감성 보컬 김나영과 에너지틱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아이돌 그룹 T101(티아이오티)가 무대에 올라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 부안예술회관, '이날치 흥보가' 공연

부안군은 오는 5월 15일 오후 7시 30분 부안 예술회관 공연장에서 기획 공연 '이날치 흥보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전통 판소리 '흥보가'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해 국내외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이날치 밴드의 대표 공연으로 전통과 현대 음악이 결합된 독창적인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에서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세', '아나리', '음식을 처리하는데' 등 흥보가 레퍼토리와 앵글곡 '별주부'가 울며 여자오되'까지 이날치만의 개성 넘치는 음악 세계를 70분간 생생한 라이브로 만날 수 있다.

공연은 초등학교 이상 관람 가능하며 티켓은 오는 5월 7일 오전 9시부터 티켓링크 및 부안 예술회관 방문을 통해 예매할 수 있다. 관람료는 5,000원으로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정은 50%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 부안예술회관, '소통왕 말자할매 더 재즈 SHOW' 5월 22일 공연

부안군은 오는 5월 22일 오후 7시 30분 부안 예술회관 공연장에서 기획 공연 '소통왕 말자할매 더 재즈 SHOW'를 공연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에서는 인기 TV 프로그램 '개그콘서트'의 인기 코너 '소통왕 말자할매'의 주역인 개그맨 김영희·장범균이 출연해 재치 있는 입담과 공감 가득한 이야기로 관객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재즈보컬 유하리와 모던스왱 밴드가 함께해 재즈와 라틴 감성이 어우러진 세련된 라이브 무대를 선보이며 풍성한 공연을 완성할 계획이다.

공연은 초등학교 이상 관람 가능하며 티켓은 오는 5월 14일 오전 9시부터 티켓링크 및 부안 예술회관 방문을 통해 예매할 수 있다. 관람료는 5,000원으로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정은 50%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옛 전북의 구심점

###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 선화당

#### 관풍각

#### 내아

####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내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전주시 제공>